

2024년도 사우회 정기총회 열려



장명호 사우회장

2024년도 사우회 정기총회가 2월 28일(수)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 의실에서 열렸다. 류근종 사무처장의 성원보고에 따라 총회 개최를 선언한 장명호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는 여러모로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연초에 여러분과 약속했던 일들을 모두 차질없이 성취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특히 작년 한 해만 2,400만원의 발전기금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올해도 사우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장 회장은 또 '작년 한 해 신입회원은 24명인데 비해 탈퇴(별세로

인한)회원은 26명'으로 회원 수의 감소가 갈수록 늘어남을 우려했다.

한윤희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제1호 의안인 2023년도 결산안이 상정되어 박수로 가결됐다. 이어 상정된 제2호 의안인 2024년도 예산안도 이의없이 가결됐다.

공지사항을 전하는 시간에 장 회장은 작년 5월부터 사우회 각종 업무를 맡아 일해 온 이종태 국장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회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정기총회가 끝난 뒤 회원들은 같은 건물 지하에 마련된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며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눴다.



한윤희 감사

상반기 동호회 활동 개시

사우회의 각 동호회가 새해를 맞아 상반기 활동을 시작했다.

▶등산동호회(회장 최정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10시 30분 서울 근교 산에서 진행된다.

▶바둑동호회(회장 이창호)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 2시 사우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한문공부동호회(회장 양진수)

이건세 훈장의 지도로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사우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지금은 莊子를 공부하고 있다.

▶캘리그래피동호회(지도 정인영) 매주 수요일 11시 사우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사우회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동호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산동호회



바둑동호회



한문공부동호회



캘리그래피동호회

올해 제1차 이사회 가져

2월 5일(월) 11시 사우회 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 이사회가 열렸다. 19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1호 의안으로 2023년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제2호 의안으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제3호 의안으로 회무규정 중 경조비를 조정하는 안건을 논의, 의결했다.





CREATIVE MEDIA GROUP



국내 최고 버라이어티 채널



내 손 안의 즐거움



대한민국 No.1 스포츠 채널



다시보는 감동, 함께하는 재미



드라마로 꿈꾸는 세상



CREATIVE MEDIA GROUP



국내 최고 버라이어티 채널



내 손 안의 즐거움



대한민국 No.1 스포츠 채널



다시보는 감동, 함께하는 재미



드라마로 꿈꾸는 세상



CREATIVE MEDIA GROUP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1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sau.com>)에 있습니다

- | | | | | |
|--------------------|----------------|----------------|----------------|----------------|
| • 임무혁(이사) 100만원 | • 김광용(기술) 20만원 | • 신해명(관리) 10만원 | • 김진홍(관리) 10만원 | • 김우중(관리) 10만원 |
| • 최준식(보도) 50만원 | • 육수길(관리) 10만원 | • 김광곤(기술) 10만원 | • 신견옥(관리) 10만원 | |
| • 金泳日(보도,스포츠) 30만원 | • 문용수(관리) 10만원 | • 전재철(보도) 10만원 | • 정 규(편제) 10만원 | |
| • 이명세(관리) 20만원 | • 박종규(기술) 10만원 | • 황진욱(편제) 10만원 | • 오명환(편제) 3만원 | |



임무혁



최준식



金泳日



이명세



김광용



육수길



문용수



박종규



신해명



김광곤



전재철



황진욱



김진홍



신견옥



정 규



오명환



김우중

회/원/동/정/

▶ 황희만(보도)



을 역임했다.

1월 18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보도본부장, 울산 MBC 사장, C&I 사장, 본사 부사장 등

▶ 안혜란(편제)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 (주)박스미디어 뉴미디어본부장으로 메타버스 분야와 유튜브 제작 전반을 지휘하고 있다.

▶ 김도인(편제)



사를 두 차례 지냈다.

1월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026년까지. 방송문화진흥회 이

▶ 이종광(관리)



선』 등 주로 꽃과 봄을 주제로 詩作을 해왔다.

다섯 번째 시집 『고향의 봄』을 출간했다. 『라일락꽃 피는 마을』 『花香千里』 『카네이션』



▶ 이용석(편제)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한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인용(보도)



겸임한다.

3월 1일 출범한 '법무법인 울촌'의 가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울촌의 공익법인인 온울 이사장도

▶ 박성제(보도)



종로구 삼일대로 J&J 빌딩(삼일빌딩 뒤 일산칼국수 건물) 3층에 북카페 오티움(otium)을 열었다.



▶ 대보회(회장 김용빈)

1월 12일 경북공역 인근 식당에서 기술부문의 권태수, 오정수, 안계홍, 홍환식, 차종식, 이한익 등 90세 및 米壽를 맞은 회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 방승찬(보도)

1985년 보도국 입사. 보도국 영상편집부 등 근무. 2023년 퇴사.



▶ 한기현(관리)

1986년 총무국 입사. 경영지원국장, iMBC이사, MBC충북 사장 등 역임.



▶ 황외진(보도)

1991년 보도국 입사. 논설위원실장, MBC C&I 사장 등 역임

관계회사 신임 임원 내정자

MBC경남 사장 이우환
광주MBC 사장 김낙곤
대구MBC 사장 황외진
대전MBC 사장 진종재
목포MBC 사장 김순규
안동MBC 사장 채환규
여수MBC 사장 이호인
원주MBC 사장 전병덕
MBC C&I 사장 도인태
부사장 정영하
이사 황선숙
MBC플러스 부사장 김남중

MBC영동 사장 한정우
울산MBC 사장 유해진
제주MBC 사장 정용식
전주MBC 사장 정희찬
춘천MBC 사장 최현영
MBC충북 사장 이태문
포항MBC 사장 이승용

MBC아트 사장 유현
이사 서영오
iMBC 이사 이성주
MBC미주법인 사장 이모현

▶ 기우회(회장 김창수)

기술인 모임인 기우회는 1월 26일 회원 50여명이 종로의 한 연회장서 2024년 신년 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경조사항

구순: 류달훈(편제) 35.03.26 이종선(관리) 35.03.30
황재원(기술) 35.05.01

팔순: 성창용(대전) 45.03.22 정대용(편제) 45.04.10 박명하(대전) 45.05.05

고희: 하병호(기술) 55.03.16 이상이(보도) 55.03.16 김선희(ANN) 55.03.18
이재갑(편제) 55.03.22 하경목(기술) 55.03.24 전용립(관리) 55.03.25
정창남(보도) 55.03.30 이종수(관리) 55.04.15 김성규(관리) 55.04.18
김재동(편제) 55.04.23 이준희(보도) 55.04.28 전우성(관리) 55.04.28
윤영관(편제) 55.05.01 오범성(관리) 55.05.06 전영도(기술) 55.05.07
김시리(편성) 55.05.10

회갑: 김일만(편제) 64.04.02 김영원(관리) 64.04.06 김종민(편제) 64.05.07

결혼: 권수훈(관리) 딸 2/18 방승찬(보도) 아들 2/24

부음: 권오형(업무) 모친상 1/14 박영선(보도) 시모상 1/18
안진영(편제) 장모상 1/19 채애림(관리) 시모상 1/21
김진홍(관리) 장모상 2/02 강현식(편제) 장모상 2/04
윤홍섭(보도) 부친상 2/14 지석원(편제) 장모상 2/15
신석화(기술) 장모상 2/20 강지현(관리) 모친상 2/21
곽재석(기술) 장모상 2/23 강세영(편제) 부친상 2/24
양운수(기술) / 김완식(기술) 장모상 3/06

연회비

평생회비: 방승찬(보도) 한기현(관리) 황외진(보도)

2023년: 강효복(관리)

2024년: 강복주(대전) 고준호(업무) 권혁화(ANN) 김선희(ANN)
김종오(보도) 김채영(ANN) 나종석(보도) 남궁미(ANN)
노영인(편제) 문용수(관리) 박민정(ANN) 박찬순(편제)
박효언(ANN) 반주원(ANN) 방남순(ANN) 백명순(ANN)
서정호(대구) 서은선(ANN) 신명현(업무) 안종순(ANN)
안주희(ANN) 엄기원(관리) 육수길(관리) 윤남현(대전)
이대교(관리) 이명순(ANN) 이성호(편제) 이승재(기술)
이인숙(ANN) 이연경(ANN) 이하결(관리) 정명환(대구)
정영희(ANN) 조성식(업무) 채애림(관리) 최경미(ANN)
최운형(ANN) 최정일(관리) 최화숙(ANN)

2025년: 김상옥(편제) 오명환(편제) 홍신숙(관리)

주소변경 / 신규

편제: 김익원 서울 강남구 개포로 310(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김철진 강원 원주시 배울로 154(반곡동, 제일풍경채 센텀포레아파트)
황선길 경기 파주시 경의로 1030 (야당동) 헤리움

보도: 金泳日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 (우동, 트럼프월드센텀아파트)
박래양 경기 화성시 남양읍 고향의봄길 36(신남리, 서희스타힐스4차)
방승찬 서울 노원구 석계로13길 6-10 (월계동, 월계2차한일아파트)
황외진 서울 강남구 도곡로43길 20 (역삼동, 래미안 그레이튼)

관리: 정광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61 (서현동, 효자촌삼환아파트)
한기현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7 (용산동5가, 파크타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崔寅俊(관리)
2023년 9월
23일 별세.
향년 88세.
1967년 총무
부 입사. 사업
부 등 근무.
1997년 퇴사.



白重錫(편제)
1월 23일 별세.
향년 88세.
1990년 TV제작국
미술부 입사.
셋트실 등 근무.
1994년 정년퇴직.



高興復(기술)
1월 27일 별세.
향년 89세.
1968년 기술국
입사. 1993년 국장
대우 기술위원으로
퇴사.



辛炯昌(보도)
2월 18일 별세.
향년 88세.
1964년 보도국
기자 입사. 1973년
퇴사. 보사부
대변인, 해외개발
공사 본부장.

뒤늦게 배달된 아버지의 훈장



이재은
(보도, 이사)

그래서 생소한 느낌이 드는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서러운 울음이었습니다.



‘꺼억 꺼억’ 한참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위신이고 체면이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70년을 사는 동안 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지난 1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기 육군본부입니다. 선생님의 부친 성함이 ‘우字 종字신가요?’”

내용인즉 6,25때 전사하신 아버지께 당시 무공훈장이 수여됐었는데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전달하지 못했었다고 했습니다. 1952년, 제가 세상에 태어난지 3개월 만에 아버지는 전쟁터로 떠나셨고 얼마 후 전사 통보를 받았 습니다. 남겨진 것은 손톱만한 증명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육본 담당자의 전언에 의하면 아버지는 5사단 36연대 3대대 소속으로 철의 삼각지 김화에 서 종전 한 달 10일을 남기고 전사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중대장이 기록해놓은 내용이었답니

다. 며칠 후 ‘무성화랑무공훈장’이 왔습니다. 70여 년 전,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 전쟁터로 떠난 남편의 전사 통보를 받고 까무러쳤던 젊은 어머니는 이제 97세의 할머니가 되어 뒤늦게 배달된 남편의 훈장을 말없이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이미 마른지 오래입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불러 보지 못한 채 70년을 살아온 제가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맨 처음 든 생각은 ‘내 아들은 나처럼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원초적인 안심이었습니다.

조부모님 밑에서 괴롭고 외롭고 서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의 아픈 세월을 제 아들에게는 절대

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소박한 결심은 제 삶의 목표 중의 하나였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원망했던 철부지 소년은 어느덧 백발노인이 되어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훌륭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모하게 됐 습니다. 늦게라도 아버지의 훈장을 우리에게 전달해주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MBC 시절

회의는 춤춘다



김우룡(편제)

▶ 우리는 눈 뜬 장님이었다

땅거미가 질 무렵 하네다공항에 내렸다. 무슨 회의를 하는지도 자세히 모른 채 국제회의에 대표로 참석하게 됐으니 걱정이 앞섰다. 입국수속을 끝내고 밖으로 나오자 내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NHK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와타나베PD라고 했다. 통성명을 끝내고 대기하고 있던 세단에 함께 탔다. 호텔로 가는 도중 그가 물었다.

“방송국에서 일한 지 몇 년이나 되세요?”

“7년 넘었습니다.”

“나는 27년 됐습니다.”

아차, 그때야 알아차렸다. 왜 그가 방송국에서 몇 년이나 일했다고 물은 이유를. 도쿄 위성방송회의, 약칭 TCC에 내가 MBC대표로 참석한다는 공문을 보낼 때 ‘PD 김 아무개’라고 쓰려니 초짜 티가 나서 Senior TV Producer라고 ‘셀프 발령’을 냈었다. 그러니 NHK에서는 제작국장급 인사가 오는 줄 알고 그에 상응하는 고참PD를 공항 영접에 내보낸 것이었다. 대단히 황송한 일이었다.

한동안 나는 MBC의 해외연락책이었다. 외국에서 편지나 텔렉스 등이 오면 그것을 처리하는 일을 했다. 공식적으로 Foreign Liaison Officer는 편성국장이고 국장을 보좌하는 일이 내 임무였다. 1976년 NHK에서 보낸 공문 한 장이 내 책상에 배달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송사 대표가 참가하는 “텔레비전 위성방송 임시조정본부(TCC) 회의”가 76년 9월 6일부터 4일간 도쿄에서 열린다.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이었다. 공문의 내용을 살펴 보니 고위 간부가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기에 편성국장 또는 보도국장 중 한 명을 파견하는 결재안을 올렸다.

그런데 다음날 되돌아온 결재서류에는 두 국장 이름을 지우고 “김우룡 파견”이라고 쓰여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함께 이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방송사 대표는 KBS 宋在克 기술본부장과 TBC 洪斗杓 편성이사였으니 말이다.

회의 장소는 NHK에서 가까운 ‘시부야 도부호텔’. 개막 첫날 각국의 방송위성, 위성방송 현황 보고가 있었는데 이젠 제일 말석인 내 차지였다. 1970년 충남 금산지구국이 설치되었으나 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술력도 없고 재정도 어렵던 시절에 위성의 상용화는 ‘남의 나라 얘기’였다. 1957년 소련 스푸트니크 위성이 세계 최초로 발사된 이래 올림픽은 전 세계에 동시 중계가 가능해졌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TV중계로 덕분에 올림픽은 ‘남는 장사’가 됐다.

1964년 도쿄 올림픽 때부터 TV의 위성 중계가 가능해졌지만 정지궤도 위성이 도입되기 전이라서 매우 부분적이었다. 수영, 승마, 요트, 유도 등 일부 종목이 제한적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생중계됐다. 24시간 동시 중계는 1972년 뮌헨 올림픽부터였고, 세계적으로 올림픽 유치전이 치열해진 것은 1984년 LA올림픽의 TV 흥행 덕분이었다.

회의 두번째 날, 洪 이사는 ‘중요한 일을 봐야 하니 회의를 잘 지켜보라’고 이른 다음 사라졌다. 그는 “내일 맛있는 초밥을 사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이날 각국의 지구국(earth station - 하늘에 떠 있는 통신위성으로 beam을 쏘아 올리든가 또는 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지상의 시설) 현황과 회선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지구국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전 세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상공에 하나씩 모두 3개의 위성이 필요한 사실조차 모르던 시절, 우리는 방송위성에 관해서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사회자가 회의



“인생은 60부터” ABU 대상을 수상하다.

우측 끝이 필자, 그 옆이 김현철 선배, 그 옆이 임택근 전무

중에 up-leg, down-leg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를 되풀이하니 ‘거 참 이상하다 무슨 강강 댄스를 중계하나?’라고 오해했다. 알고보니 지구국에서 위성으로 전파를 쏘아 올리는 것을 up-link, 위성이 그 신호를 받아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 쏘는 것을 down-link라고 부르는데 이를 속칭 up-leg, down-leg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48년 전에는 기술본부장이나 이사님이나 무지하기는 다를 바 없었다.

회의 3일째는 이바라기에 있는 일본 위성센터로 시찰했다. 이바라기는 혼슈 남동부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도시로 도쿄에서 두어 시간 떨어져 있으며 태평양 상공에 떠 있는 위성으로부터 빔을 송수신하기에 지리적으로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회의 기간에 어느 호텔에서 일본방송문화재단 주최로 대표단 환영리셉션이 열렸다. 재단 이사장의 영어 환영사가 감명 깊었다. ‘방송과 문화는 물과 기름의 관계와 비슷하다. 방송문화라고 흔히 말하지만 방송의 속성은 反文化的이다. 따라서 방송을 문화적으로 만드는

데 여러분들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티에는 여러가지 생선회와 초밥이 나왔다. 큰 얼음덩어리 위에 야채를 놓고 그 위에 생선 토막을 정갈하게 배열해 두었다. 외국사람들이 선뜻 먹지 않자 기모노차림의 여성들이 파티장을 돌면서 사시미와 초밥 먹는 법을 설명해주며 적극 권유다. 이른바 <스시의 세계화 작전>이었다.

그 해부터 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 오면 월요일 아침 임원회의에서 출장 보고를 하도록 했고 내가 1번 타자였다. 나는 통신위성의 현황, DBS시대 도래, 세계방송 교류의 중요성 등에 대해 보고했고 글로벌시대를 대비해 국제 업무를 전담할 부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내 보고를 듣고 이환의 사장은 즉각 국제협력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오징어와 서커스

국제회의라는 게 많은 경우 일종의 축제다. 회의 장소를 보면 이런 사실이 분명해진다. 국제회의는 대개 名勝地를 순회하면서 열린다. 금년에는 Acapulco, 내년에는 Cancun, 그 다음 회의는 Las Vegas 등등. 어쩌면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일 수도 있다. 1978년 제 15차 ABU총회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다. 당시 인도에는 (나중에 아웅산에서 순직한) 李範錫 대사가 계셨는데 이 대사가 한국 대표단 일행을 관저로 초대했다. 뉴델리 외교청에 새로 지은 한국대사관 관저에는 경비원과 주방 일꾼까지 포함 7명이 일하고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물었더니 ‘7명의 인건비를 다 합쳐도 미국에서 한 사람 쓰는 비용도 안 된다’고 해서



우측 끝이 필자

웃었다. 나는 총회에 앞서 열리는 관련회의(associated meetings)에 참석하기 위해 2주일 먼저 떠났다. 뉴델리에서 꼬박 23일을 같은 호텔, 같은 회의장에 있었다. 무슨 토의할 게 그렇게 많았는지 관련 회의가 2주간 계속됐다.

총회에는 국내 방송 3사의 거물급 대표단이 참가했다. KBS 洪景謨 사장, MBC 임택근 전무, TBC 金德寶 사장 외에 KBS 박배식 부장이 나와 같이 실무자로 일했다. 任宅根 전무는 다정다감했고 순진한 분이였다. 아쇼카 호텔 방에 짐을 풀자마자 “김 차장, 뭐 오징어포 같은 것 없어?”라고 물었다. “네, 제 방에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누군가가 내게 ‘어른을 모시고 다니려면 주전부리를 꼭 준비해 가라’고 일러줘서 미리 준비했던 것이다.

“김 차장, 인도 서커스가 유명하다던데 어디서 하는지 알아봐요.” 임 전무는 호기심도 많았다. 인도의 서커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죽음의 우물(Well of death) 같은 스텐트 쇼가 그 예다. 20~36feet의 원통 나무 구조물 안에서 오토바이나 소형 자동차로 수직벽을 돌며 온갖 묘기를 보여주는 공연은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 목숨을 건 스텐트 쇼라고 하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서커스 구경은 하지 못했다.

▶고리짝과 냉면

1981년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연차총회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다. 마닐라 총회 대표로는 洪意衍 제작이사와 김우룡으로 결정됐다. ABU총회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총회(GA)에 앞서 관련 회의가 1주일 안팎 열리고 이어서 본회의가 4일간 열린다. 나는 관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먼저 현지로 떠났고 홍 이사는 총회 전날 현지에 도착했다. 홍 이사가 도착하는 날 사무국에 요청하여 차를 한 대 배정받아 공항으로 나갔다. 나는 공항을 빠져 나온 홍 이사의 행색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들고 온 여행가방이 바로 “고리짝”이었기 때문이다. 홍 이사가 보자기에 싸서 들고 온 고리짝은 가죽으로 만든 골동품 같은 것이었는데 오래 쓴 탓으로 네 귀퉁이가 다 헐고 겉은 곱팡이가 쓴데다 퇴색된 것이었다. 고리짝은 사과 상자 같은 모양이니 갖고 다니기가 매우 불편한 물건이다. 차에 오르자 나는 “가방이나 하나 사려 갑시다”고 말씀 드렸더니 꽤히 좋다고 하신다. 그리하여 샘소나이트 가

방을 장만하게 되었다. 당시 홍 이사로서는 난생 처음 외국 여행이었으니 가방이 미처 준비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플라자 호텔에 체크인 하자마자 홍 이사 왈, “김 부장, 여기 냉면 하는 집 없어?” 물으신다. 내 이럴 줄 알고 냉면집을 진작에 찾아 냈었다. “입에 맞을지 모르지만 한 집 찾아 냈습니다.” 마닐라에 도착하여 두 번째로 한 일은 냉면집 방문이었다. 홍 이사는 정동 시절에도 중앙일보 앞 냉면집으로 해장을 하러 다닌다고 소문이 나있었다. 냉면 한 그릇을 해치우고 호텔 방으로 돌아 오자 그는 호주머니 여기저기에서 1천달러, 2천 달러 묶음의 돈을 꺼내서 테이블에 놓더니 “난 미국 돈 잘 모르니 김 부장이 알아서 쓰게” 하신다. 모처럼 해외에 나간다고 주변에서 노자를 좀 보탬듯 싶었다. “아이구, 잘 넣어놔다 사모님 선물이나 하나 사 가십시오!”

다음날 총회가 개막하고 오전 세션이 끝나자 홍 이사는 호텔 방에서 밥을 시켜 먹자고 제안했다. “그럽시다.” 호텔방에서 낮12시에 시작한 룸 서비스는 밤 12시가 돼서야 끝났다. 양주를 몇 병이나 마셨는지 모른다. 늘 시청률 싸움에 寧日이 없다가 모처럼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 “지옥 탈출” 심정이었으리라. 그 다음날 홍 이사는 “나 여기 심심해서 못 있겠다”고 하소연이다. 이를 우짜노? 재미도 없는 총회장에 가봐야 별 수 없고. 그래서 “도쿄로 가시지요. 거긴 이낙용 지사장도 계시고 여기보다야 마음 편하실 겁니다.” “응 그래, 비행기편 좀 알아봐줘.”

평소 참 때문지 않고 순수한 분이라고 여겼던 대로 그분은 가식이 전혀 없었다. “회의는 김 부장이 알아서 잘 하고, 그럼 나는 도쿄에 가서 며칠 있다가 서울로 가네.” 다음날 아침 홍 이사는 도쿄로 떠나고 회의장은 나 홀로 지키게 됐다. 홍 이사가 마닐라에서 한 일은 냉면집 방문, 샘소나이트 가방 구입 그리고 룸 서비스 세 가지였다.

▶음식은 문화다

음식은 그 나라 고유의 문화다. 책상다리로 요리를 하든 전갈을 튀겨 먹든 시비할 것도 없다. 1970년 중반, 당시 MBC는 대만TTV방송사, 홍콩RTV방송사와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는 등 자매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는 대만 신문국(우리 나라의 공



인도 뉴델리 ABU총회. 좌측 끝이 필자, 그 옆이 김현철 선배, 그 옆이 임택근 전무

보처에 해당) 초청을 받아 임택근 전무, 김현철 선배를 모시고 타이페이를 1주일 방문했다. 우리 일행을 위해서 TTV사장은 오찬을 배풀었다. 중국사람들은 손님 접대에 손이 크다. 16코스 청요리를 먹고 있는 중에 계란 흰자 같은 요리가 각자 앞으로 조금씩 서빙되었다. 우리는 별생각 없이 먹었다. 그런데 “방금 드신 게 뭘지 아세요?”

“뭘~데요?”

“원숭이 골인데요”

세상에나. 원숭이 골이라니. 황당했지만 이미 뱃속으로 사라지고 없는 것을 어찌랴. 다음날 서울신문 姜命相 특파원이 우리 일행을 여기저기 “호기심 천국”으로 안내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식용 원숭이를 별도로 키우고 있다고 했다. 재래시장 구경을 나섰을 때 우리는 손질한 대형 지렁이를 식품으로 팔고 있는 것을 목도했다. 유쾌한 성품의 강 특파원은 대만 하면 떠오르는 ‘3廳 이야기’를 들려줬다. 서울에서 청장님이 대만에 출장을 오면 3청을 순회하고 간다는 우스개 소리였다.

‘가배廳’은 ‘커피숍’이란 뜻이지만 정작 커피보다는 옆자리가 잘 보이지 않는 남녀의 은밀한 데이트 장소였고, ‘찬廳’은 ‘식당’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옛날 우리나라에도 유행하던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였고, ‘이발廳’은 머리 깎는 일보다 여급의 특별 서비스에 주안점이 있는 퇴폐업소였다. 이 때 애저衰猪도 처음 먹어 봤다. 원래 애저는 조선 중엽에 생긴 요리라고 한다. 낳은 지 1개월 남짓 된 새끼돼지를 마늘과 생

강 등을 함께 넣고 푹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던 음식이다. 예부터 산이 많아서 농사지를 땅이 부족했던 전북 진안군에서는 돼지를 많이 쳤는데 새끼를 많이 낳다 보니 자연스레 이 같은 보양식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러나 대만의 애저는 푹 고아서 먹지 않고 마치 베이징 덕처럼 훈제하여 껌질만 베껴서 먹는다. 중국식 회식은 호스트가 환영 인사를 하고 나면 순서대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고 그때마다 ‘간빠이’를 하게 된다. TTV사장의 오찬에서 술이 약한 우리 일행은 만취가 되었고 다음 날까지 행오버(hangover)에 시달려야 했다.

대만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국토면적이 3분의1 밖에 되지 않고 인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만인들은 평생 꿈꾸는 로망이 3가지라고 한다. 첫번째는 대만 최고봉 우사(玉山) 등반하는 일이고, 둘째는 최대로 큰 호수 르위에탄日月潭을 수영해서 건너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전거를 타고 966km에 이르는 대만 섬 일주하기(臺灣環島)라고 한다. 일찍부터 전자 IT분야를 개척해 온 대만은 ‘작지만 강한 나라’ 홍콩, 싱가포르와 더불어 아시아의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인도 뉴델리에서

한때 나는 비행飛行중년을 꿈꿨다.



서태경(보도)

1990년 봄, 영상부 김광택 선배와 미사리에서 소형 보트 조디악을 타고 영상 촬영 테스트를 했다. 조디악 보트는 회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홍수가 났을 때 촬영에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타고 이동하면서 수중 촬영도 가능했다. 우리는 이미 수중 촬영에서 원팀이 되어 스쿠버 다이빙을 함께 하며 여러 편의 수중 다큐를 만들었다.

그날 조디악 보트 테스트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변에서 하늘을 나는 행글라이더를 보았다. 모터가 달린 초경량 비행기(ULM)였다. 그걸 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웁지, 저걸 타고 항공 촬영하면 딱이네'라고 생각했다. 당시 MBC는 항공 촬영 때마다 헬기를 빌렸는데 임대료가 1시간에 이백만원 정도였다. 그 경량 비행기 가격이 1천만원 정도였으니 몇 시간 헬기 렌트비면 아예 그걸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즉시 회사에 기획안을 올렸다. 그렇게 해서 김광택, 임종근, 서태경 세 사람은 항공 촬영을 위한 비행기 조종을 배

우기 시작했다.

목동에서 미사리 비행교육장까지 가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집을 나섰다. 그렇게 5개월 가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종 훈련을 했다. 경비행기 조종은 결코 쉽지 않았다. 유럽의 경비행기 조종석은 나란히 앉을 수 있는 2인승이지만 우리는 앞뒤로 앉는 구조라서 앞에 조종 교관이 앉고 나는 뒤에 앉아 조종 모습을 지켜봤다. 몇 번 지켜본 후 내가 앞에 앉아 조종간을 잡았고 뒤에서 교관이 컨트롤 했다. 첫 비행은 그야말로 감동이었다.

그리고 한 달 반 후 첫 단독 비행을 했다.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그러나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멋진 긴장감이었다. 땅을 박차고 올라 100~200m 상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짜릿한 쾌감이라니,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과 발아래 줄지어 달리는 성냥갑만한 자동차들, 그리고 작은 비행기가 신기하다는 듯 손을 흔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진정 무한한 자유를 느꼈다. 이륙은 수월했지만 착륙은 어려웠다. 상공에서 착륙 지점을 내려다 보면 손톱만큼 작아 보이는데 착륙을 위해 서서히 땅으로 접근하는 그 순간이 엄청 긴장됐다. 일차

타이밍을 놓쳐 다시 올라가야 했고 두번째도 역시 실패했다. 결국 첫 번째 단독 비행은 세 번의 시도 끝에 착륙에 성공했다.

만취로 귀가한 다음 날 새벽에 숙취로 힘들어하면서도 조종을 배우러 나서는 내게 아내가 물었다. "그렇게 재밌어?" 나는 이렇게 답했다. "응, 하늘을 날면 자유가 보여"

아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쳐다보더니 경비행기 조종사를 소재로 드라마를 썼다. 오현창 PD와 주간 시츄에이션 드라마 '서울 시나위'를 할 때였는데 '자유가 보인다'라고 제목을 달았다. 비교적 자유롭게 조종을 하게 됐을 때 아내를 뒷자리에 태웠다. 놀이 기구도 무서워 못타는 아내였지만 '자유가 보인다'는 내 말을 믿고 선뜻 뒷자리에 앉았다. 나는 신이 나서 조종간을 잡고 하늘로 날았다. 뒤에서 아내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더 스릴을 느끼게 해주려고 한강을 따라 위커힐까지 갔다.

그리고 착륙했는데 뒤에 앉은 아내가 하얗게 질려 실신 직전이었다. 아내는 '무서우니 빨리 내려가자'고 소리친 것을 나는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 때문에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어 즐겁다고 하는 줄 착각



했던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공들여 배운 조종은 그러나 한 번도 항공 촬영에 써보지 못했다. MBC가 헬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수십만원 짜리 드론이 열일하는 지금은 일반인도 항공 촬영이 다반사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비행에 관한 꿈은 '희미한 옛 추억'일 뿐이지만 그때 비행 순간의 짜릿한 기억만큼은 지금도 가슴을 뛰게 한다. 그때 비행을 함께 배웠던 김광택 선배는 워싱턴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사냥과 낚시를 즐기고 임종근 선배는 LA에서 가끔 서핑을 하는데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의 볼륨을 크게 틀고 말리브 해변을 달린다고 했다. 비록 자주 만날 수 없지만 어디서든 늘 행복하시길.

동부에서 살아 보니



김용현(미주)

LA에서만 40년 넘게 살다가 '뉴저지 브리지워터'로 옮겨온 지 어느새 두 계절이 지나갔다. 이사 직전 자동차 도난 사고를 당한 데 이어 아내의 낙상 사고도 있었고, 도착한 후에도 소소한 행정 사무들의 처리가 늦어져 다소 피곤하고 실망감이 들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추수감사절은 나름 뜻깊게 보냈다.

403년 전,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미국 동부에 상륙한 청교도들의 결단과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여정이었지만 '김씨네 민족 대이동'을 무사히 완수하고 먼저 와 있던 아들, 딸네와 함께 동부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부로의 이주는 인생의 후반기에 적지 않은 변화를 택한 셈이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것, 새로운 세상을 꿈꾸

며 살아왔다.

70년 가깝게 장수하는 독수리는 40세쯤 되면 중요한 결단을 한다고 했다.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그동안 써먹어서 닳은 부리를 바위에 문질러 새로운 부리가 돌아나게 한 다음 새 발톱과 새 깃털도 만들어 다시 용맹스럽게 30여 년을 더 사느냐의 결단이다. '혁신'이라면 모름지기 그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내가 시도한 변화도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깨끗한 자연과 초록의 세상에 들어온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끼게 해줬다. 겨울이 오기 전 나는 많은 시간을 딸네 텃밭에서 보냈다. 흙을 일궈 고랑을 만들고 물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수확을 했다. 텃밭에 가득한 초록과 그 텃밭을 오르내리며 산기슭에서 만나는 다양한 초록들. 녹색지수는 문명의 척도라 했던가, 초록은 평화요 안식이였다. 지금은 그 초록이 노랗고 빨간 색깔로 바뀌거나 땅으로 내려와 휴

식을 취하고 있지만 봄이 되면 또 만날 초록을 기다리며 아내와 함께 양파, 아네모네, 작약, 튤립 등도 심었다.

올 겨울이 얼마나 추울 것인지 또는 기후 온난화로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캘리포니아에서 그날이 그날 같은 건조하고 지루한 날씨 속에서 살아온 터라 적당히 춥고 눈도 오고 비도 오는 변화무쌍한 날씨가 결코 나쁘지 않은 않을 것 같다. 가까이서 가족이 자주 만날 수 있어 좋은 반면 주변에 한국 사람이 많지 않은 단점은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한인 밀집지역에서 살며 게을리했던 타 인종에 대한 친화성, 개방성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것과 주류 사회 복판에서 내 민족의 아픔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한다. 남은 세월 고향을 떠나 또 다른 고향을 만들며 살아가는 동안 나는 톨스토이의 단편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 나갈 것이



다,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를.

그 사이 LA의 친구 정찬열 시인이 '이별은 없다'며 정겨운 한 편을 보내왔다.

**'이별은 가슴 속에 숨어 있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억해야 하는 건
잊지 않으면 이별은 없다는 건'**

그마음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
(2023년 12월)

김승월 칼럼

나답게 내 생을 마무리하려면



김승월
(편제·이사)

“요양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요즘 문상가서 종종 듣는 말이다. 요양시설에서 삶을 마치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됐다. 나나 내 가족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좋을까.

떠올리기 싫은 문제지만 정면으로 마주할 날이 한발 한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땀다.

코로나 시절, 아는 분이 줌(zoom) 강의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한다는 말에 솔깃했다. 수강료는 ‘내일배움카드’로 정부 보조를 받는다고 했다. 가족 누군가가 몸이 불편해서 등급판정을 받으면 지원급여를 받으며 ‘가족요양’할 수도 있단다.

따 두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포구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을 찾았다. 저녁반 수강생은 40명. 여자들 뿐일까 봐 신경 쓰였는데 남자가 10명이다. 50대가 가장 많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교육원에 등록해서 240시간의 수업과 80시간의 현장실습을 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얻는다. 강의는 간호를 비롯해 식사, 배설, 개인위생 및 임종, 치매 어르신의 이상행동에 대한 대응 등이다.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AED) 실기는 필수다. 현장실습은 마포구청 뒤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했다. 어르신 270명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195명이 돌보고 있었다. 요양원 공간이 시원하고 깨끗했다. 물리치료실, 작업실, 강당 등 각종 시설도 잘 갖추고 있었다. 신청자가 많아 2년에서 2년 반쯤 대기해야 들어올 수 있으며 다른 요양센터도 대기 기간이 비슷하다. 대부분은 치매 환자다.

시도 때도 없이 ‘섬마을 선생님’을 노래하는 분, 끝없이 배회하는 분, 온종일 침대에서만 지내는 분들도 계셨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만 살다 가면 어찌나’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어떤 분이 요양원에 오면 좋을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최미경 사무국장에게 물었다.

“치매가 있으면 집에서는 돌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1대1로 돌볼 수 있으면 치매 증상이 있어도 가족들이랑 사시는 게 괜찮지만 증상이 아주 심하면 요양원에 오셔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돌보면 지원해주는 ‘가족요양인보호사제도’가 있다. 자식이 부모를 1하루60분 돌보면 월 40여 만 원, 배우자를 하루 90분 돌보면 월 80여 만원을 받는다.



최태자 박사

하지만 가족의 돌봄은 쉽지 않다. ‘수발에는 교과서가 없다’라는 일본 책을 번역한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최태자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타인을 돌보는 것은 교과서라도 있지만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교과서대로 가지 않아요. 가족요양이 어려운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업적인 요양보호사는 8시간 일하고 퇴근하지만 내 남편, 내 부



성산노인복지센터

모 요양은 싫다고 그만둘 수 없잖아요. 특히 ‘노노老老 케어’는 더 힘들죠. 옛날에는 노인학대의 가장 많은 행위자가 ‘아들’이었는데 최근에는 배우자에 의한 노인학대가 가장 많습니다. 노노케어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산노인복지센터(데이케어)에서도 실습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보는 시설인데 주대상은 4등급, 5등급 환자다. 규모는 요양원보다 작지만 어르신들의 상태가 요양원보다 나아서일까. 어르신끼리 소통이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치매라도 단편적인 대화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자 어르신이 남자 어르신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편인데 남자 어르신들은 대체로 과묵한 편이지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다가 나이 들어 상실감이 큰 것도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은 심명숙 성산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의 말이다. 대체로 남자 어르신들은 관계 형성이 서툰 편이라고 했다. 특히 사회에서 고위층에 있던 분일수록 적응이 쉽지 않은 듯했다. 요양시설 입소자 대

부분이 여성이고 서비스하는 분도 거의 여성이다. 프로그램 대부분도 ‘그림그리기’, ‘종이접기’처럼 여성 취향적이다. 남성으로 요양시설에 살기가 고달파 보인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10%는 치매나 거동이 불편해서 등급을 받는다. 등급을 받으면 하루 3시간 정도 요양보호사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데이케어센터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좋은 요양원 선택조건에 대한 최태자 박사의 조언이다.

“건물이나 교통편의성보다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과 ‘시스템’이 중요합니다만, ‘사람’과 ‘시스템’은 잘 보이지 않아서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봉사 활동을 하든지 해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년에 한 번씩 요양시설을 평가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요. 선택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영국에서 발간한 <생애 말기 돌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좋은 죽음’이란 “첫째 익숙한 환경에서, 둘째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셋째 가족, 친구와 함께, 넷째 고통 없이 죽어가는 것”이라 한다.

자신의 뒷자리를 미리 봐 두는 이는 적지 않지만, 요양시설을 미리 알아두는 이는 보기 힘들다. 심명숙 시설장은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결정을 ‘사전의료지시서’로 쓰듯 ‘사전케어지시서’를 미리 써두길 권한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 남은 인생을 나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김승월과 심명숙 씨



심명숙 씨

전설의
박반장이
돌아온다

MBC 금토 드라마

수사반장 1958

2024.4.19 첫 방송 | 금·토 밤 9시 50분

이제훈 이동위 최우성 윤현수 서은수 기획 MBC 제작 BARUNSON STUDIO 스트리밍 Disney+ 책임프로듀서 장재훈 홍석우 크리에이터 박재범 극본 김영신 연출 김성훈

“역경 속 4년 연속 흥제!”

‘연인’에서 ‘밤에 피는 꽃’까지 7개월 연속 흥행 신화,
2024년 드라마 왕국 MBC의 봄이 시작됩니다!

LINE UP



WONDERFUL WORLD

원더풀 월드

김남주, 차은우 주연
2024년 3월 1일 첫 방송



수사반장
1958

이제훈 주연
2024년 4월 19일 첫 방송



우리 집

김희선, 이해영 주연
2024년 상반기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한석규 주연
2024년 하반기